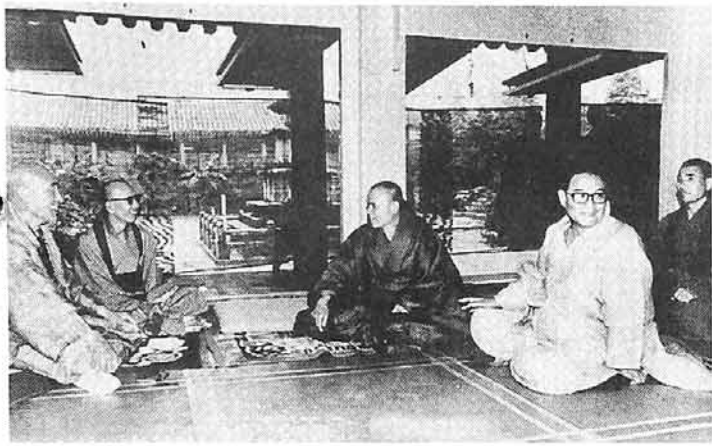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서로 돕고 존중한다”



1974년 해인사 관음전에서 월산스님 서용스님 성철스님 한국스님(사진 왼쪽부터)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전심전력하듯 생명체가 의심덩어리 되어 의식을 초월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저절로 자비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비심은 화합과 같은 통일된 의식을 바탕으로 대립과 분열로 치닫는 현대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비로소 일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평등과 대자유라는 인간의 주체성을 찾는 길은 선(禪)뿐임을 알게 되죠. 또한 자기 본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게 된다고 즐겼더니 마침내 허락 하셨습니다. 일본에 유학가서는 임제대학에서 강사로 계시던 구송박사를 만나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구송박사는 선철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셨는데 '참사람주의'에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임제대학은 학생들이 전부 스님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송박사의 선철학 영향을 받은 나는 취미활동도 그저 선문화에 대해 감상하는 것이

“禪은 세간 공부와 달라요 100m 달리기 할때 전심전력하듯 전 생명체가 의심덩어리 되면 의식 초월 자유자재 ...”

'참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첫째 감각이 있고, 감각을 지배하는 이성이 있고, 이성보다 더 깊은 자리에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강조되는 휴머니즘 인간주의 즉 이성을 지배하는 영성자리에 살아가는 참사람입니다. 그 참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자비심으로 서로 화합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사람인 것입니다. 일본 유학시절에 천황에게 절할 것을 강요당한 일이 있습니다. 불경에 승려는 천자나 임금에게도 절을 하지 않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속국으로 온갖 압박을 받아야 했던 나는 천황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일본 승려를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아서 거기서 불평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차별만 나가면 그게 하나가 없는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침략하거나 착취한다거나 자기나라 이익을 위해 국가 이기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나라 이익만 추구하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났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국가도 지나치게 이기적이면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욕심이 없습니다. 욕망은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구불만이 따르게 마련이지요. 그 욕심이 지배하면 자기 마음이 욕심이 끄달려 자유가 없어요. 욕심의 노예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참자유라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때 나옵니다. 폭력이라든가 무리한 일이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욕망이 지나칠때 나오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 질서가 있고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화합과 협조의 길이 생기는 것이지요. 불성으로 살면 자비심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무위진인(無位真人)으로 어디에도 걸림없이 조화롭게 사는 길이 열리지요. 참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그 자세를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하는데 불문에 들지 않고도 꾸준히 수행하는 길은 자기 반성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주일후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은 인간 각자가 자신의 참모습인 불성을 깨닫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참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화평해 집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해탈하게 되어 충만한 자비심이 넘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고 진정한 자비행이 발원됩니다. 그러한 자리라야 우리가 오늘날 과학문명의 주인공이 돼서 미래의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고, 인류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치는 경계가 너무 많아요 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苦)가 아니다'를 읽어보았습니 다. 스님께서는 제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다 저 자신을 공부시키는 재료라고 하셨는데 공부재료도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료가 좀 천천히 오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오주영·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처님께서는 다가오는 경계에 속지말고 쉬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몸을 빌고 거기에 과거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키운 의식과 영원한 자기 불씨, 핵이라고 해도 좋고 심방이라고 해도 됩니까만 아무는 것이 계합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과거 생의 인으로 해서 현실의 과거, 그것이 악업일 때도 있고 선업일 때도 있었지만 가지가지 내려고, 어서 빨리 내 곁을 떠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제 발목을 잡고, 저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안절부절 울고불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 않던가요. 주인공도 이렇지만 공에서 나온 것이니 공에다 놓아라, 빌 공자 주인공 공에서 나온 것이니 빌 공자 주인공에 놓아라, 그렇게 쉬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지 말고 놓고 쉬어라 하니 그래도 마련이 없어서 웬지 허전하고 불안하네요.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천정도 없이 사람이 특 터졌으며 특터졌으며 얽매일 것도 붙잡힐 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려하는데 이견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내게 삼재나 팔자운명이니 하고 물을 때면 그런 것은 본래 없다. 병도 불을 자리가 없고 가난도 불을 자리가 없는데 삼재팔자나 다 뭐냐고 말해줍니다. 그제 다 내 마음으로 짓고 내 마음으로 받는 것이네

지상상담 길 묻는 이에게 (Logo)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원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편지·팩스 보내주세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상담원은 조계종 대덕사 대승스님에 의해 상담을 맡아드립니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평화·자유 이르는길 禪에서 찾을수 있어요 자비심 대립-분열 사회상 화해로 이끌죠

확실히 모르고, 선을 하느니 뉘느니 하는 말은 구도선이라 해서 잘못하면 구업이나 지옥지, 선하고는 거리가 됩니다. 21살에 백양사에 와서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2년 더 머물며 수행했습니다. 그 후 일본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스님(만암스님)의 만류로 오대산 선방으로 갔습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일본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여길 때인지라 유학을 갔으면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스님은 내가 좋아 '사미'나 '비구'니 하는 계단을 안 밟고 대번 백양사에 예전 강사가 되었으니 수도를 제대로 못했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방한암스님이 계신 선방으로 가 참선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까, 일본 임제대학을 다니던 유종묵이라는 분이 일본에 가 공부해 보는게 어떻겠느냐고 권하시더군요. 우리 스님보고 5원만 대주면 장학생으로

있죠. 그 당시 일본은 선문화라는 것이 형성돼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선서(禪書)나 다도(茶道)나, 선화(禪畫)나... 그러나 그 때는 감상만 할 뿐 글씨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총무원에서 일하면서 글 부탁하는 이들이 많아 붓을 잡게 돼 얼마전까지 썼는데 요즘은 기력이 달려 잘 쓰지 않죠. 예술은 인간의 심오한 내면, 영원의 그 바탕, 인간의 근원 그 바탕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문학은 인간의 심오한 내면의 바탕에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맺어 노벨상감이지요. 재미있게만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글씨도 그런 바탕에서 나와야 예술적 가치가 있는거구요. 그것은 모두 선(禪)과 직결됩니다. 선은 철학이고 종교속의 종교인 깊은 것입니다. 이런 보배가 인류 역사상 달리 없어요.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선(禪)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사람 운동'을 강조합니다.

기도 했고, 나는 글 쓸 수 없어 버티다 징병을 당했으나 결국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참사람다운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했어도 그런 어려움은 지들만 하지 않았을텐데요. 최근 생명체 복제나 뭐니 시그럽습니다. 과학문명의 발전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학문명을 지배하는 바탕의 원리가 올바르게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 인간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달려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되고 인간도 서로 조화해서 이룩되지 근본 하나가 없으면 혼란해서 전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근본은 전부가 하나로 되어 있고 그 하나만 되어 있으면 또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리거든요 거기에 개체가 다 하나의 바탕에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와 많은 개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로 다가오게 됩니다. 살면서 속 상한 일, 가난이 다가드는 것, 괴로움이 오거나 고통함이 찾아 오거나 허무한 생각이 드는 것, 또 몸에 병이 생기고 서로 서로 부딪치며 아픔을 겪는 일들이 모두 앞서의 언어 파로 오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절 잠재의식이 현재 의식으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지만 참나 참나 돌아가면서 참나로 달려드는 것이니 속지말고 쉬어라, 이러셨거든요. 그런 말씀 하신 뜻은 모든 것-네 마음도 고정된게 없고 내가 보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내가 듣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도 고정되지 않아 일체가 공했으니 내게 다가오는 경계도 공했으니라, 그러니 속지말라, 고정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얽매지 말라, 거기에 착을 두고 전전공공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쉬어라 하셨습니다. 일체가 공했으니 공에서 나온 것을 공에다가 다시 놓아라 하신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일체가 공했으니 어디에 불을 자리가 있고 무엇이라고 불을 붙여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본래 공한 것을 공연히 뭐가 실체가 있는 양 붙잡아 매려고 하니가 달라붙는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때에

부처님오신날 범포시용 소책자 부처님의 생애 (Image of Buddha) 봉축현수막과 어깨띠 및 리본 대용 버튼도 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석가모니부처님의 감동적인 일대기를 인도 현지의 원색사진들과 함께 편집한 불교신행의 길잡이. 가격표: 현수막(6m) 40,000원, 현수막(8m) 50,000원, 현수막(10m) 60,000원, 봉축어깨띠 2,500원, 봉축버튼(100개) 40,000원, 부처님의 생애(책) 1,500원. 문의처: 포교사업팀 (02)719-7115-6, 불교방송 (02)705-5305-7, 불교부선방송 (05)644-5114, 불교광주방송 (062)520-1114, 불교대구방송 (053)427-5114, 불교청주방송 (0431)211-2090, 제작/열린불교 (02)739-0108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Image of a woman)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임부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질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 때 뒷덜이 검고 딱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있다. 18. 당뇨와감당성고혈당이다.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